

# 특별한 느낌

제인 맥브라이드  
실화에 근거함

**파**울로는 물 밖으로 나와서 아빠와 함께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. 그런 뒤 아빠와 할아버지와 감독님께서 파울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확인을 해 주셨다.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.

“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.” 파울로가 말했다. 그는 손을 가슴에 대었다. “여기가요.”

엄마는 파울로를 꼭 껴안아 주었다. “그건 네가 확인을 받으면서 성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란다.”

파울로는 고개를 끄덕였다. 그리고는 그 좋은 느낌을 사라지게 만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.

그러나 바로 다음 날, 동생 카를로가 파울로의 장난감 비행기를 망가뜨리고 말았다. 그 비행기는 파울로가 한 달 내내 돈을 모아서 샀던 거였다.

“무슨 짓을 한 거야!” 파울로가 소리쳤다. “그냥 내 물건엔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겠니?”

“미안해.” 카를로가 말했다. 카를로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. “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.”

“고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똑같겠어!”

카를로는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다.

파울로는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졌다. 예수님이셨다면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을 거다. 파울로가 침례를 받고 느꼈던 그 느낌을 이제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걸까?

파울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다. “저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었어요. 그런데 벌써 망쳐 버린 것 같아요.”

“우리 아들이 뭔가 잘못을 했나 보구나.” 엄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. “우리가 잘못해서 다 망쳐 버린 것 같을 때도 있지.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다시 성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단다.”

파울로는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실지 알고 있었다. “알아요. 회개 말이죠? 맞아요. 용서를 구해야겠죠.”

엄마가 끄덕이셨다. “그런 뒤 네가 성찬을 취할 때 너는

파울로는 실수를 하고 망쳐 버렸다.  
이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?



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맺은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면 침례와 확인을 받았을 때처럼 다시 깨끗해지는 거란다.”

파울로는 카를로를 찾아갔다. “소리 질러서 미안해. 같이 한번 고쳐 보자.”

카를로는 형을 보며 웃었고, 파울로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셨을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. 그날 밤에 기도할 때, 파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고 카를로에게 더 친절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. 마음속에 고요한 평안이 느껴졌다.

그 주 일요일에, 파울로는 교회에서 성찬 기도문에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다.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해서 들었다. 그리고 빵과 물을 취할 때,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.

엄마 말씀이 옳았다. 파울로는 그 특별한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. ■

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산다.

원화: 마이클 리

- 새 비행기의 날개는 깨끗하고 반짝이죠. 날개 위아래로 흐르는 공기는 비행기가 떠 있게 해 줍니다.

- 그러다 날개에 얼음이 생기고 눈이 달라붙으면, 날개 주변의 공기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게 돼요. 그러면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지 못할 수도 있어요.

-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사람들은 큰 호스로 날개에 물을 뿌려서 날개가 다시 깨끗해지게 하고 반짝이게 해요.

- 그러면 비행기는 마치 새것처럼 하늘을 날 수 있어요!

## 날개가 항상 반짝이게 하세요!

-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.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성신의 은사를 받죠.

-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성신을 느끼기가 어렵게 돼요.

- 그렇지만 회개하고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. 우리 죄는 사하여지고 성신은 우리와 함께할 수 있어요.

- 구주의 속죄가 있기에, 우리는 매일 회개할 수 있어요! 일요일에 취하는 성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고,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며,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 줍니다.